
출장복명서

KDI-Brookings 공동연구 중간보고회

2025년 12월

1 출장 목적 및 배경

- (목적) KDI-Brookings 네 번째 공동연구 보고서의 각 챕터의 원고를 공유하고, 원고 내용에 대해 검토·토론하여 2026년 발간 예정인 보고서의 방향성 및 내용 발전 방향을 도출
 - KDI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(Brookings Institution)와 2018년부터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국제 경제의 주요 아젠다를 발굴, 연구 및 협업을 추진함.
 - 2026년 발간 예정인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저명한 저자들을 섭외하여, 다자주의 위기에 따른 도전 과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.

- 2025-2026년 공동연구의 주제는 "다자주의의 위기"로,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시스템적·구조적 도전과 국제 협력의 주요 기능적 과제에 대해 논의
 - 총 8개 챕터로 구성되며, 국가 및 글로벌 차원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,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강화 방안을 다룰 예정임.
 - G20, 미니라터럴리즘(minilateralism), 글로벌 사우스 등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할 계획

- 본 중간보고회에서는 저자들의 초안을 공유하고, 이에 대해 토론하여 원고 발전 방향을 도출
 - 국내·외 저자들이 각자의 초안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원고에 대해 토론을 진행
 - 또한, 저자들은 중간보고회 외에도 각 원고에 대한 전문가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이후 보고서 내용을 보강할 예정

- 또한, 원고를 기반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면담하고 의견을 교환

- (참고) 목차 및 저자
 1. Overview
 - Zia Qureshi (Brookings), 이종규 (KDI)
 2. Globa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 in Transition
 - Jean Pisani-Ferry (Bruegel, Science Po & PIIE), George Papaconstantinou (EUI)
 3. Multilateralism amid the New Geopolitics
 - Peter Petri (Brandeis University)
 4. Between Min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
 - 임원혁 (KDI 국제정책대학원)
 5. Rising Global South and the Multilateral System
 - 김경훈 (대외경제정책연구원)

6. Preserving a Rules-Based World Trading System as Tides Shift
 - Simon Evenett (IMD)
7. Ensuring Global Financial Stability in an Era of Disruption
 - 김준일, 홍종수, 마창석, 양주영 (KDI)
8. Harnessing AI and Emerging Technologies for Global Public Good
 - Elham Tabassi (Brookings)
9. Shaping Climate Cooperation in a More Contested World
 - 박기영 (연세대)

2 출장개요 및 일정

□ 출장지 및 방문 기관

- 출장지: 워싱턴 DC
- 방문 기관: 브루킹스 연구소 등

□ 출장자 및 출장일정

출장자명	소속	직함	비고	출장 일정
강선경	글로벌·북한경제연구실	전문연구원	인천 - 워싱턴 DC	2025. 12. 8(월) ~ 12(금)
임원혁	KDIS	교수	인천 - 워싱턴 DC	2025. 12. 8(월) ~ 12(금)
박기영	연세대학교	교수	인천 - 워싱턴 DC	2025. 12. 8(월) ~ 12(금)
김경훈	KIEP	부연구위원	인천 - 워싱턴 DC	2025. 12. 8(월) ~ 12(금)
George Papaconstantinou	EUI	교수	피렌체 - 워싱턴 DC	2025. 12. 8(월) ~ 11(목)
Jean Pisani-Ferry	Bruegel, Science Po & PIE	교수	파리 - 워싱턴 DC	2025. 12. 8(월) ~ 11(목)
Peter Petri	Brandeis University	교수	코네티컷 - 워싱턴 DC	2025. 12. 8(월) ~ 10(수)
Simon Evenett	IMD & St.Gallen	교수	제네바 - 워싱턴 DC	2025. 12. 8(월) ~ 11(목)

- 출장 기간: 2025. 12. 8(월) ~ 12(금), 3박 5일 (출·입국일 기준)
- 해외 저자들은 개인 일정으로 인해 2025. 12. 8(월) ~ 11(목), 2박 4일 진행
- Peter Petri 교수는 미국 거주자로 2025. 12. 8(월) ~ 10(수), 2박 3일 진행
- Jean Pisani-Ferry 교수는 11일(목)-13일(토) 개인 일정으로, 공식 일정(2박 3일)에 대해서만 숙박·일·식비 지원. 또한, 공식 일정에 따른 항공료 및 항공수수료 인보이스와 개인 일정에 따른 항공료 및 항공수수료* 인보이스와 비교하여 개인 일정에 따른 금액이 더 높을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 (*비교견적서 별첨.)

○ 세부 일정 (안)

일자	시간	주요 활동 내용	비고
12/8 (월)	10:15~09:50	[출국] 인천 → 워싱턴 DC	
	18:00~19:30	간담회	CID 주관 간담회 참석 예정
12/9 (화)	8:30~16:35	<KDI-Brookings 공동연구 중간보고회>	오찬 제공
		Opening Remarks - Cecilia Rouse (Brookings) - 조동철 (KDI)	
		<세션 1> 좌장: Ben Harris (Brookings) Globa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 in Transition - Jean Pisani-Ferry (Bruegel, Science Po & PIIE) & George Papaconstantinou (EUI) Minilateralism amid the New Geopolitics - Peter Petri (Brandeis School) 토론자 - Jay Shambaugh (Brookings&George Washington University) - Abraham Newman (Georgetown University)	
		<세션 2> 좌장: 이종규 (KDI) Between Minilateralism and Universalism - 임원혁 (KDIS) The Global South and Multilateralism - 김경훈 (KIEP) 토론자 - 윤종원 (KDI) - Iyabo Masha (G-24)	
		<세션 3> 좌장: Danny Leipziger (George Washington) Preserving a Rules-Based World Trading System as Tides Shift - Simon Evenett (IMD & St. Gallen) Ensuring Global Financial Stability in an Era of Disruption - 홍종수, 마창석 (KDI) 토론자 - Daria Taglioni (World Bank) - Kenneth Kang (IMF) - 김정욱 (KDI)	
<세션 4> 좌장: Zia Qureshi (Brookings) Harnessing AI and Emerging Technologies for Global Good - Elham Tabassi (Brookings) Shaping Climate Cooperation in a More Contested World - 박기영 (연세대)			

일자	시간	주요 활동 내용	비고
		토론자 - Thomas Wheeler (Brookings & Harvard) - Stephane Hallegatte (World Bank) - 한요셉 (KDI)	
		Closing Remarks - 이종규 (KDI) - Zia Qureshi (Brookings)	
	18:00~19:30	간담회 (1)	
12/10 (수)	10:00~11:30	Brookings 면담 - Zia Qureshi(Brookings), Jean Pisani-Ferry(Science Po&PIIE), 임원혁(KDIS), 박기영(연세대), 김경훈(KIEP), 강선경 (KDI)	
12/11 (목) -12(금)	11:50 ~ 17:50 (인천)	[도착] 워싱턴 DC → 인천(+1일)	

○ 호텔 정보

- The Ven at Embassy Row, Washington, D.C., a Tribute Portfolio Hotel
- 주소: 2015 Massachusetts Ave NW, Washington, DC 20036 미국
- 전화번호: +1 202-265-1600

3 출장 주요 내용

1. KDI-Brookings 공동연구 중간보고

Session 1. 챗터 1·챗터 2에 대한 의견 교환

- 글로벌라이제이션(globalization)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- 글로벌 경제와 관련한 연구에서 FSB, Basel, OECD뿐만 아니라 G20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, 관련 논의를 보다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시됨.
- 최근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이 크게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데, 향후 미국이 다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짐.
- 한편, 중국의 부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고립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제약하는 하나의 ‘페이스메이커’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제시됨.
- 국제질서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과 함께, 향후 국제질서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Session 2. 챗터 2·챗터 3에 대한 의견 교환

- 다자주의의 위기가 규범의 실패라기보다, 기존 제도가 변화한 권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불일치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, 이는 제도의 붕괴가 아니라 대표성·효과성의 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됨.
- 미니래터럴리즘(minilateralism)은 다자주의를 대체하는 질서가 아니라, 다자주의의 기능 마비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서 제시되었으며, 이를 어떻게 다자적 정당성과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됨.
-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불균형한 비용 부담과 대표성 결여에 대한 정치·경제적 반응으로 나타나며,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요구는 체제 전복이 아닌 rebalancing에 가깝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됨.
- 또한,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보편적 다자주의와 미니래터럴리즘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, 두 체제 간 기능적 분업과 연계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됨.

□ Session 3. 챗터 5·챗터 6에 대한 의견 교환

- WTO 위기의 핵심 원인은 제도 설계 실패가 아니라, 안보 논리가 무역 규범을 압도한 구조 변화에 있음.
- 무역 분절화는 효율성을 희생하는 대신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통념과 달리, 실증적으로는 회복탄력성(resilience)을 약화시킬 수 있음.
- 글로벌 무역질서는 단일 규범 체제에서 벗어나 다수의 분절화 시나리오로 변화 중이며, 관리 가능한 안정화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됨.
- 한편, 글로벌 금융·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, 국제통화로는 달러 중심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.
- 그러나 무역 네트워크와 금융 네트워크 간 비대칭성이 확대되고 있어, 향후 전환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 분절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분석, 조기경보체계, 국제공조 메커니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됨.

□ Session 4. 챗터 7·챗터 8에 대한 의견 교환

- AI는 글로벌 공공재적 위협을 수반하는 기술이지만, 동시에 지정학적 경쟁과 산업·안보 논리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 전통적 다자협력이 작동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
- 이에 따라, AI 거버넌스는 경쟁을 전제로 하면서도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식별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임.
- 안정성, 보안, 기술 표준 등은 경쟁과 분리된 협력 영역으로 논의하는 반면, 최첨단 모델·인프라 등의 영역은 경쟁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.
- 한편, 기후 협력의 핵심 문제는 감축 목표의 합의보다 기후 목표와 에너지 안보, 산업 경쟁, 재정 제약 간의 균형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관찰됨.
- 파리협정은 강력한 법적 틀을 제공했으나, 상호적 인센티브와 이행 강제 수단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
- 기후 거버넌스가 단일 체제가 아니라, 다층적 구조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논의됨.

2. Brookings 면담

□ 한편, 이후 일정과 출판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

- 2026년 3월까지 저자들은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원고를 수정·보완하여 제출
- KDI는 한국 저자들의 원고를 취합하여 브루킹스워 회람하고, 브루킹스워 역시 취합된 원고를 KDI와 공유
- Overview 파트는 '26년 3월까지 취합된 원고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4월까지 서로 공유
- 브루킹스워는 '26년 7월까지 모든 에디팅 과정을 마무리하고, 에디팅된 원고를 12월 최종보고회(출판보고회) 이전에 공유하기로 함.
- 한편, 저자들에게는 원고 작성에 이어 수정 시에도 보고서의 전체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, 공통된 스토리라인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함.